

광주시, 여름방학 결식아동 1만9천명에 무료 급식



22억 투입... 일반음식점 813곳서 이달말까지

광주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3일 “여름방학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 1만8993명에게 급식제공 기관 813곳을 통해 이달 말까지 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급식지원자 중 계속 지원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 중 소

년소년가장, 한 부모 가족지원대상 지원 대상 가정,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대상 아동이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와 보호자 부재(없는)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저하에 따른 긴급보호 필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맞벌이 가구, 그 외 교사 및 동 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지원을 요청한 아동 등

이 포함됐다.

지원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가정적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526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 도시락 센터 3곳, 지역아동센터 284곳에서도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급식카드 대신 식사 배달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락센터를 통해 직접 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급식 지원에는 총 2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아동 한 끼당 3500원씩 지원된다. 시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양질의

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제공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양성갑 광주시 저출산아동담당관은 “어려운 생활환경 등으로 밥을 굶는 어린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어른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점과 급식소의 위생 점검과 음식재료 안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출범

“실질적 제2 도청”... 경제·사회단체들 ‘기대감’

전남도의 사실상 제2청사의 역할을 하게 될 동부지역본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동부권 경제·사회단체들은 환영 현수막을 내거는 등 기대감을 표했다.

3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본부 출범 이후 상공인, 세마을지도자 등 동부권 사회단체에서 이낙연 도지사의 ‘동부권 제2도청 설치’ 공약의 실천이라고 반기며, 주요 교통 요충지 등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동부권 지역 상공인 등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의 남방 이전 이후 동부권 90여만명 주민의 자리에 자리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1개 과 수준의 동부출장소를 70여명 규모의 국 단위로 격상시켜 날로 폭발하는 환경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남악에 있는 도청을 가지 않고도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종합민원실 성격의 ‘실질적 제2도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사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시장·군수회의, 간부회의를 여는 등 매주 한 차례 이상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동부지역본부 청사는 출장소에 입주한 신용보증재단 등을 내보내고 증축이나 신축 없이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 9월 중 개청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무위원 영남 7명·호남 1명... 인사차별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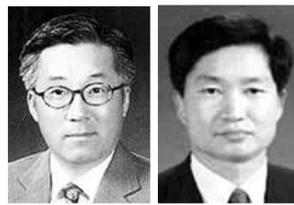
문체부장관 김종덕

해수부차관 김영석

박대통령 2기 내각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김종덕(57)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가 끝난 직후인 이날 2기 내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문체부 장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각료급 인사 문제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포함해 18명의 국무위원 중 영남 출신 7명, 서울 출신 5명, 충청 출신 3명,



김종덕 교수 김영석 비서관

인선·호남·강원 출신 각 1명 등으로 호남 지역 차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흥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영상과 언론,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영상 프로덕션

대표와 감독, 한국디자인학회,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과 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현장 감각이 뛰어나 문화융성의 국정기조를 실현하는데 적임이라고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통상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는 4~5일이 소요됐지만 지명 하루 만에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총리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

사전검증을 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영석(55)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신임 해수부 차관으로 내정하고 지난달 25일 2기 내각 차관급 인사 때 발표하려 했지만 당시 순재학 전 차관이 모친상을 당한 직후여서 발표를 미뤘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남 이산 출신으로 천안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27회로 30여년간 해수부에서 근무하며 해양정책국장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무차장 등 해양과 항만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재 “교육감 선거, 정치자금법 적용 합헌”

장만채교육감 현소 관련 결정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시·도지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지난 1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59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50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 및 당선 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장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같게 됐는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담양서 세계 희귀종 ‘맹구알 버섯’ 발견

남성 생기능 개선 효과...완도수목원 오득실 박사 인공재배 추진

전남도완도수목원(원장 박형호)은 3일 “최근 담양 대덕면에서 괴물버섯으로 알려진 세계적 희귀종인 맹구알버섯(사진) 2개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맹구알버섯(Calvatia nipponica)은 남성 생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용버섯으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계룡산에서 아이 주먹 크기의 작은 버섯이 발견된 바 있지만 축구공보다 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버섯은 2012년 26kg의 거대한 버섯이 캐나다에서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주요 여름~가을에 공원이나 정원수야



래, 풀밭 등지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며 둥근 모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거의 발견되지 않은 희귀버섯에 속한다.

다른 유사한 버섯과 달리 속이 순백색으

로 딱 찬 식용버섯으로 어린 버섯은 주로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맹구알버섯이 발견된 장소는 지난해까지 농지로 활용하다가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 풀밭이 된 지역으로 광주 상무고 이승렬 교장이 최초로 발견했다.

국내에서는 맹구알버섯이 흔하지 않아 국내 미생물 유전자원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발견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버섯 전문가인 완도수목원의 오득실 박사는 “희귀버섯이 전남에서 발견된 것은 국내외 학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앞으로 새로운 식용버섯 발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골든 타임, 황금시간으로”

국립국어원, 우리말 순화어 발표

“사고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시간”을 일컫는 단어 ‘골든타임’의 다듬은 말로 ‘황금시간’이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은 3일 “지난 6월30일~7월 11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malteo.korean.go.kr)를 통해 ‘세어 하우스’·‘골든타임’·‘원데이 클래스’·‘디독스’를 대신할 한국어 순화어를 제안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어 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의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국어원은 이 단어를 갈음할 표현으로 ‘공유 주택’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차곡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범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록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총도리별 장학금 소외가
500가 2,400만원 100대
독거노인 소외가 100가 500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이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